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봄철 정기학술대회(4.18)
젠더연구회 발표문

흔들리는 젠더, 변화 중인 세상:
드라마 <미생>에 대한 여성주의적 독해

정영희(고려대) · 장은미(서강대)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현실 민낯 드러낸 ‘개념드라마’ 미생에 대한 여성주의적 읽기

지난 연말, 한국은 드라마 <미생>의 열풍으로 들썩였다. 드라마 <미생>은 윤태호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각색한 것으로(극본 정윤정/ 연출 김원석) 케이블 채널인 tvN에서 방영되었는데, 케이블 드라마라는 한계를 딛고 마지막 회는 8%대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만화 ‘미생’은 누적 판매부수도 200만부(날권 기준)를 돌파하면서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드라마 종영 후에는 ‘미생물’이라는 패러디물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드라마 <미생>의 열기는 ‘네티즌이 뽑은 2014년 최고의 tvN 드라마’라는 타이틀로도 입증되었다. 심지어 <미생> 인기비결을 빅데이터로 풀어내기도 하였다(한겨레, 2014. 12. 22)

무엇보다 드라마 <미생>(이후 <미생>)은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압축되는 고단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리얼하게 혹은 담담하게 혹은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선아, 2014; 정덕현, 2014; 정태인, 2014). <미생>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수많은 ‘장그래’의 아픔을 달래준답시고 기간제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노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놔 또 한 번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연합뉴스, 2014. 12. 24, 미디어오늘, 2014. 12.25)

한편, 지난 ‘3.8 세계 여성의 날’에 드라마 <미생>팀은 원작자 윤태호 작가와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에 선정되었다. 여성 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계기를 보여줬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¹⁾. ‘상사맨’으로 얘기되는 종합상사에서 근무하는 ‘선차장’과 신입사원 ‘안영이’는 극중 출연하는 남성 캐릭터에 비해 숫적으로는 열세지만 주인공 격인 ‘장그래’와 ‘오과장’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드라마 전개에 있어 그 비중이 높다. 하지만 <미생>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들은 그 열풍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²⁾). 따라서 연구자들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다시 읽고자 한다. 이는 <미생> 방영 이후의 다양한 해석과 논의 속에서 여성주의적 개입이 미약할 뿐 아니라, 몇 안 되는 작업들이 여성의 현실과 문제가 제대로 드러났다고 그렇지 않다는 평면적인 서술에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조앤 스콧의 젠더 개념을 통해 드라마 <미생> 속에서 드러나는 성차에 대한 지식들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을 포착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사무직 여성들의 삶을 통해 변화하는 젠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의 한국의 여러 가지 조건과 갈등과 모순들이 녹아있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미생>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텍스트를 만든 사회적 현실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념과 무의식이 응축된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텍스트에 대한 탐색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다르지 않으며, 텍스트 ‘안쪽’에 대한 판단은 텍스트의 ‘바깥’을 보는 관점과 분리될 수 없다(김수환, 2013, 203쪽). 이렇게 ‘사회적 현상’으로서 텍스트 <미생>을 다루는 작업은 <미생>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시대의 문제적 지점들을 탐구하는 작업이며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서 젠더 인식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미생>을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사회적 양극화 심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등을 겪어왔고, 사람들은 사회적 위기에 개인적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방향의 사회변화는 2008년 또 한 번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중산층의 위기를 현실화했다. 중산층이 전체적으로 몰락의 불안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성별, 계급, 연령의 개인들은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위기에 적응하고 있다. 드라마 <미생>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국면에서 탄생한 텍스트로, 특히나 이 과정에서 젠더가 이러한 역사적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젠더’는 원래 문법적 성 구분을 뜻하는 평범한 단어였으나, 양성의 차이가 생물학적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행의 결과에 불과함을 밝히고자 한 1960~70년대 제2물결 페미니즘운동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성립됐다.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성을 자연적, 생물학적인 범주로 만드는 ‘섹스(sex)’라는 용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성이라는 ‘젠더’라는 새로운 범주를 불러냈다. 이러한 섹스/젠더의 이원화된 구분은 젠더를 통해 성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남녀의 자연적인 차이인 섹스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를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의 부당성과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여성주의자들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섹스/젠더의 구분 자체를 문제화하였

다. 섹스도 젠더도 실은 지식의 한 형태이며, 둘 다 ‘구성된 것’임을 인식하자는 시각이었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투명한 ‘자연’에 대한 관념을 지속시키고, 두 용어의 구분에 집착하는 한 섹스가 일차적인 분리이고 젠더는 그 위에 입각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결국 젠더의 궁극적인 기반은 섹스에 준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프리드만, 2002).

배은경은 젠더 개념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배은경, 2004). 오드순은 페미니스트들이 젠더와 섹스를 구분하면서 젠더에만 골몰하고 섹스는 괄호 속에 넣어버림으로써 오랫동안 ‘사회가 섹스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토머스 라퀴는 의학사 연구를 통해, 서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섹스로 규정하는 관념은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근대적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지배와 불평등을 정당화해 온 종교와 전통 같은 기존의 힘의 붕괴하는 가운데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여성억압의 새로운 근거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섹스에 근거해서 젠더가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젠더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대 초기에 섹스가 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델피는 젠더가 섹스에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했으며 스콧은 오히려 섹스/젠더의 구분이 젠더 지식의 일종이며 섹스와 젠더를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젠더 효과에 다른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Scott, 1989).

이러한 논의들은 남성과 여성이 일련의 고정된 남성적/여성적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 때로는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때로는 ‘남성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늘 망각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젠더에 관해 우리가 실제로 문제제해야 할 것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반이 있는데도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는 남녀 대립쌍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방식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젠더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각각에 내적 동일성과 외적 상이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인지의 틀이나 규칙의 존재를 환기하는 개념이다(배은경, 2004, 65쪽).

우리가 젠더를 ‘성차에 대한 지식’으로 문제화 한다는 것은 첫째, 성차에 부여된 의미들이 다양하고 모순적임을 드러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의미들이 전진하고 경합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셋째, ‘여성’과 ‘남성’이라는 범주의 불안정성과 순응성을 포착해 넷째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접합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요구한다(Scott, 1989). 따라서 연구자들은 드라마 <미생>을 통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적 상황에서, 성차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에 주목하며, 이러한 젠더지식이 다른 사회적 조건들과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지점들이 어디인가를 드러내면서 만약 이러한 국면에 적합한 새로운 젠더질서가 형성되었다면 그것의 접합방식을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스콧은 젠더를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조직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적 규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인식의 틀로서 젠더를 상정하면서, 이것이 ‘섹스와 자연을 등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섹스 및 성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생산한다'고 지적하였다(Scott, 1999). 따라서 그녀는 '젠더를 역사화'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범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국면 안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러한 구성의 과정이 행위자와 동떨어진 기표나 담론의 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행위자들 간의 구체적인 세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³⁾. 그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배은경, 2001, 222-224쪽).

첫째,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각의 향이 그것이 만들어진 특정한 맥락 안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남녀의 경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들 속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차이들인가? 둘째, '남성'과 '여성'은 행동을 규제하고 일정한 길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이상들이지, 이 이상들의 달성에 항상 미달하는 실제 사람들에 대한 경험적 묘사가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이 이 이상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망상, 판타지)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권력관계들은 성차에 호소함으로써 어떻게 강화되는가? 셋째, 양성간의 차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문화적 규범들과 사회적 역할들 속에는 불일치와 모순이 있다. 이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측면에 어떤 일률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들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위치가 진보했거나 후퇴했다는 식으로 단순히 평가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 성역할의 수행이 중요한 영역도 있고, 성차를 고려사항으로 따지는 것이 부적절한 영역도 있다. 그렇다면 어디가 그러한 영역이고 어디가 그렇지 않은 영역인가? 모순은 무엇으로 현시되며, 어떤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규제되고 또 억압되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은 드라마 <미생>에서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것이 '상사맨'이라 불리는 종합상사 사무직 노동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주목하게 하며, 이러한 범주의 경계들이 강화되는 지점들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은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한다. 또한 드라마 <미생>에서 사무직 노동 업무 수행하는 등장인물들과 그 주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시대의 판타지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들이 젠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도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드라마 <미생>에서 등장하는 주요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 기존의 젠더 수행의 모순과 불일치가 무엇으로 발현되고 이는 어떻게 교정 혹은 억압되는가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범주 그 자체의 생산을 역사적 혹은 정치적

사건으로서 따져보며, 이 사건의 상황과 효과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배은경은 이러한 젠더 개념은 인간을 남녀로 분리하는 원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계와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젠더의 문제의식에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많은 ‘차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며, 이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차이들이 그 속에서 작동한) 사건들이 놓인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특정화된 연구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으며 남녀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권력관계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배은경, 2004, 71쪽).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스콧의 젠더 개념에 기대어 드라마 <미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드라마 <미생>에서 새로운 젠더 범주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은 무엇인가를 놓치게 않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의 효과가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스콧의 젠더 개념을 적용하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범주는 특정한 시대에 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진 모호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생물학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콧은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목표를 ‘젠더라는 범주의 역사화’에 두었는데, 그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실재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주체로서의 여성 혹은 남성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즉 경험을 구성하는 법과 제도, 관념과 담론 등이었다. 따라서 젠더는 무엇보다 성별의 관계와 성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언어이자 지식이며, 이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스콧이 목표였다(김정화, 2008, 12-13쪽). 이러한 스콧의 논의에 기대어 연구자들은 드라마 <미생> 텍스트를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국면을 드러내는 담론으로서 보고자하며, 그 속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지식으로서의 젠더가 어떤 조건들과 연동되어 재구성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드라마 <미생>을 하나의 역사적 텍스트로 위치시켜, IMF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0년대 한국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신자유주의 조건 하에 젠더와 어떻게 경합 혹은 접합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분석결과: <미생>, 젠더 인식의 새로운 국면들

<미생>에 나타난 젠더 질서의 균열과 모순, 정치적 경합, 상이한 신념들의 접합과정을 노동, 사랑/연애, 출산/육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그 이유는 이 세 영역이야말로 기존의 젠더 규범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고 또한 성차별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미생>에서 젠더 인식의 새로운 지점이 보인다면 이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캐릭터, 인물간의 관계, 상황진단을 통해 성차에 부여된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 의미들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과정은 어떠

한가, 그 과정에서 젠더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구성되는가 등을 살펴보았다.

1) 온정적 리더십, 양성적 젠더 수행

<미생>에서 일터가 ‘상사맨’으로 상징화되는 종합상사라는 점은 젠더 인식이나 젠더 이슈 돌출을 저해하는 한 요소이다. 의사결정라인이 위계적이고 남성적 소통양식으로 팀이 움직이는 조직 특성, ‘조직인=남성’으로 간주하는 암묵적인 전제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덜 적합한 존재로 만드는 상황을 연출한다. 그 점에서 여주인공 ‘안영이’는 젠더 차별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안영이’가 당면하는 상황은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차별이고 억압이다.

인턴 때만 하더라도 당당하던 ‘안영이’는 능력은 있지만 여성이라는 점을 더 견딜 수 없었던 남자 선배들의 합의된 냉대⁴⁾를 묵묵히 견디고, 커피심부름, 쓰레기통 비우기 등 잔일을 한다. ‘마부장’과의 갈등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여성성을 비하하는 성적 함의를 갖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⁵⁾ 이는 분명히 위계 질서를 환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의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젠더 위계가 노동의 위계를 만나 어떻게 재형성되는가를 볼 수 있다.⁶⁾ ‘안영이’를 통해서는 기존의 젠더 질서와 차별, 공존하기 어려운 양립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기존의 젠더 지식, 모순과 균열, 접합의 전 과정을 오롯이 보여주는 인물은 사실 ‘오과장’이다. ‘오과장-팀원’, ‘오과장-선차장’등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젠더 균열과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남성, 상사로 위치하지만 그는 종종 양성적 젠더를 수행한다. 조직에서 그는 ‘최전무’, ‘마부장’등 다른 남성들⁷⁾과 달리 공동체적 사고, 팀원들과의 유대, 인정, 배려 등 다른 가치를 통해 부각된다. 이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오과장’은 그 점 때문에 상사 및 타부서와 갈등한다. 이 갈등

은 결국 ‘오과장’이 일을 함에 있어 수행하는 여성성과 타 부서나 상사에게서 보여지는 남성성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과장’이 양성적인 젠더 규범에서만 조직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오과장’이 이끄는 영업3팀은 ‘장그래’ 위치에서 보면 ‘아버지(오과장)-형(김대리)’으로 이루어진 혈연감성의 조직을 상징한다. 보살핌의 역할을 수행하는 ‘오과장’은 ‘따뜻한 가부장’이다. 신자유주의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개인 스스로 브랜드화되어야 하는 팍팍한 현실에서 ‘오과장’같은 가부장은 노동환경에서 실현불가능한 판타지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안영이’를 대하는 태도⁸⁾, ‘선차장’에 대한 배려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과장’에게 이 둘은 종종 함께 가야할 동료 이전에 보살펴야할 존재로 나타난다. 특히 ‘선차장’과의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젠더 질서(보호하는-보호받는)에 의해 ‘차장-과장’이라는 조직 위계가 전복되기도 하지만, 이는 ‘동지애’의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 쉽게 포착되지는 않는다.

조직에 대해서도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가부장적이지만 그의 태도가 불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온정적’이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오과장’의 젠더 수행은 아이러니 하게도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한’, ‘공동체적’, ‘정서적인’ 등등 온정적인 리더십, 선망하는 상사의 판타지를 만들어준다. 실상 업무과정에서의 여성적 리더십은 종종 무용한 것, 무능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타부서에는 ‘오과장’의 팀원들을 불쌍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객은 위계의 상단에서 성과와 사익을 위해 인물을 활용하는 ‘최전무’나 폭압적인 가부장인 ‘마부장’보다는 ‘오과장’의 여성적 리더십에 안도하고 위로받는다. ‘오과장’의 모순적인 젠더 실현은 언제 어디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한 신자유주의 노동환경에서 젠더 규범이 어떻게 재소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 사랑, 판타지를 버리다. 그럼에도...

기존의 많은 드라마와 달리 <미생>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애정라인은 없다. 드라마 초기 신입사원들이 ‘안영이’에게 보여준 호감, ‘오과장-선차장’ 간의 ‘office spouse’적 교감 정도이다. 젠더 전형과 성적 판타지가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는 연애서사의 약화는 젠더 규범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한 다시 구성하는가?

현상적으로 읽으면 <미생>은 연애/사랑 이야기를 버림으로써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감정적, 관계적으로 독립시킨다. 그렇게 구축된 인물은 ‘안영이’이다. ‘안영이’는 ‘마부장’의 성희롱적 언사에도, 개인 아이템을 남자 상사에게 뺏기다시피 양보해야 할 때도 흔들림이 없었다. 노동환경에서 탁월한 능력과 일관성을 보여주며 젠더질서와 계급적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하지만 사수-조수의 관계에서 ‘안영이’의 능력을 인정해 준, 여성이 아니라 능력있는 후배로 대우한, 그래서 인정받은 기쁨으로 한때 연애감정도 느꼈던 ‘신팀장’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와 단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냉대했던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착취할 때의 격렬한

반응은 ‘안영이’의 여성적 한계를 상기시킨다.

‘안영이’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안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여성’에 대한 냉대와 호의⁹⁾ 모두에 저항하며 성장했지만 아버지가 ‘신팀장’에게 돈을 빌린 것을 안 순간 좌절과 함께 ‘신팀장’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¹⁰⁾ ‘신팀장’이 ‘안영이’에게 베푼 호의가 동료애인지 이성애인지 알 수 없지만 ‘안영이’는 전형적인 젠더 질서에서 여성이 위치 지워지는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과감히 차고 나온 것이다. 이는 ‘안영이’가 남성으로부터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기존의 젠더 규범을 벗어나려 애쓴 ‘안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규범과 다시 타협에 이른다. 아버지로 인해 스스로 여성성을 제어하면서 남성화된 조직구조에서 ‘남자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결국 조직과 구성원(남성)이 요구하는 sexuality에 굴복함으로써 평온해진다. ‘안영이’에게는 기성의 젠더 질서와 차별, 저항과 타협이 표피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를 포착하는 것은 수월하다. 때로는 ‘안영이’의 부자연스러운 겉질과 곳곳에서 보여지는 젠더 억압이 불편하기도 하다.

반면 ‘오과장’을 통해 보여지는 젠더 규범은 보다 은밀하고 달콤하다. ‘안영이’에 의해 버려진 사랑의 판타지는 ‘오과장-선차장’에게서 동료애, 동지애로 변형되어 ‘일하는 기혼자’의 성판타지를 실현한다. 동지같고 연인같기도 한 이들은 육체관계는 없지만 연애 중이다. 이들 관계에서 불편한 이는 각자의 배우자 정도일 것이다. 부정하다고 비난하기도 애매하고 참자니 억울한 이들의 관계에서 감정교류와 이해, 돌봄이 실현되며 각자는 동성끼리는 절대 하지 않을 젠더 규범을 수행한다. 그들의 관계에서는 공-사가 구분되지 않으며, ‘오과장’이 많은 부분 ‘선차장’에게 조언을 구하고 감정을 치유하지만 ‘선차장’의 도움은 거기까지이다. 반면 ‘선차장’은 육아 문제로 남편과 갈등하고 그로 인해 업무적으로 무능력에 빠질 때 궁극적으로는 ‘오과장’으로부터 도움 받는다. 그의 도움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둘이 각자의 젠더 규범을 수행한 것이다.

‘선차장’, ‘안영이’의 경우 모두를 보더라도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능력은 sexuality로 뒷받침된다. 생존에 있어서 여성의 sexuality는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상사맨>으로 애기되는 남성중심의 조직에서 능력있는 세 여성 - 미혼의 ‘김선주 부장’, 기혼의 ‘선차장’, 신입사원 ‘안영이’-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존한다. ‘마녀 김선주 부장’은 관리자로 성공하기 위해 남성적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여성 관리자에게 남성적 리더십을 강요하지만 실제로 ‘철의 여인(iron maiden)’상의 여성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순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차장’은 워킹맘, 부드러운 카

리스마, 함께 일하고 ~~새로운~~ ~~상사 등으로 인식된다~~ ~~조직의 여성 관리자에게~~ 여성처럼 보이
되 남성처럼 행동하라"(Look like a lady; Act like a man)는 ~~상충~~ ~~상충~~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연기한 거래처와의 미팅을 두 번이나 미루고 싶지 않은 ‘선차장’에게 ‘장그래’를 보내 ‘소미’를 대신 픽업해 오도록 한 ‘오차장’의 도움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지만, 사적인 일에 회사 부하 직원을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처음엔 거절한다. 하지만 거기엔 ‘장그래’의 정신을 분산시켜야하는 다른 일이 걸려 있어, ‘선차장’은 결국 다른 팀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우린 ‘선차장’의 첫 번째 거절을 통해 그녀 생각의 기본 전제에 다가갈 수 있다. 조직과 가정은 별개의 영역이며, 조직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침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차장’의 사례는 결국 ‘가정-조직’의 경직적인 분리가 비현실적이며 이것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선차장’의 말처럼 사적인 일에 공적 영역의 인력을 투입하는 온당한 처사가 아닐 지도 모르며, 이러한 설정의 리얼리티 또한 문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장면이 현실적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과연 지금의 공-사 이분법의 성별 분리노동이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드러내주는 지점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녀 모두 정규직 사무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을 남성적 영역, 사적 영역을 여성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자녀 양육 혹은 보살핌 노동을 사적 영역의 담당자인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결국 ‘워킹맘’과 ‘돌봄의 모성’이 충돌하고 균열하는 지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워킹맘’으로 재현되는 ‘선차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공사 이분법의 젠더 지식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음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선차장’은 그래서 자신의 현실적 조건에서 ‘소미’ 하나만을 양육하는 ‘계획된 모성’을 실천하며 국가 위기 담론으로 연출되는 저출산을 감행중인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 부양 능력을 키우도록 강조하면서 시작되는데(조은, 2010, 80쪽) ‘선차장’과 3번째 임신으로 임신사실을 숨기고 무리하다 회사에서 쓰러진 ‘수진씨’를 통해서 우리는 ‘워킹맘’과 모성은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모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무직 여성의 ‘모성의 불가능성’은 ‘안영이’에게 선배 직장 여성으로서 충고 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애정어린 조언인 ‘결혼하지마’에서 가장 절실하게 읽힌다.

한편, 자신이 승진했다고 ‘선차장’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제안하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순간, 공적 담당자=남성, 사적 담당자=여성이라는 전통적 공-사 이분법의 젠더위계는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남성 또한 가정에서의 아이 양육이나 보살핌의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선차장 남편은 이러한 아이돌보기의 책임을 ‘선차장’의 일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선차장 남편의 전략이 현실적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그의 선택을 통해 성별 분리에 의한 공사 영역의 구분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일상의 곳곳에서 균열의 지점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IMF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로 인해 공사 영역의 전통적인 이분법이 기초하고 있는 남성부양자 모형의 설명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신경아,

2014) 이러한 선차장 남편의 제안과는 불일치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불일치가 일(회사)-가정의 상호침윤이 불가피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차장’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히 견뎌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직장에서의 그녀의 삶이 ‘그녀 자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로서, 그 처절함과 절박함이 흔히들 ‘생계 남성 가장’으로 담론화되는 직장인 남성의 일터에서의 절박함 못지않다. 근대 이후 남성들의 생애가 노동자로서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여성들의 생애는 핵가족적 성별분업 속에서 어머니노릇과 노동시장 참여의 두 축을 오가면서 구성되었다(배은경, 2008; 강이수 외, 2009). 그 결과 남성들이 “신규취업 →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 지속→ 은퇴”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생애주기를 갖게 된 반면, 여성들의 생애는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을 둘러싸고 단절과 지속이 다양하게 접합되는 복합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 여성들의 다양한 행위적 선택이 일의 영역과 가족의 영역 양 쪽에서 본인의 생애전망을 끊임없이 평가해가면서 저울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개별 여성들의 생애전망은 젠더와 계급에 의해 상당부분 틀지어진다. 개별 여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구조 속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행위적 선택을 하는데, 젠더와 계급은 한 사회 내에서 남녀에게 자원과 권력과 기회를 배분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범주들이기 때문이다(배은경, 2009, 45쪽). 여성들은 예컨대 노동자로서의 개인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 역할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가족 내 권력관계가 허용하는 한에서 가족 내 성별분업의 양상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차장’은 사무직 여성 노동자로서 개인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젠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얼굴없는 엄마를 그린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나며, 가족 내 성별분업의 양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워킹맘과 모성이 딜레마적인 여전히 위험하고 지점에서, 소미에 대한 돌봄 노동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친애적 가족(affective family)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미생>을 통해 드러나는 친애적 가족에 대한 이상화는 워킹맘과 돌봄 노동이 충돌할 때 과감히 노동현장에서 떠난 ‘오과장’의 부인과의 대비를 통해, 오과장 부인이 지켜내는 가족을 통해 신자유주의시대 워킹맘의 흔들리는 친애적 가족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젠더는 단순한 남녀 불평등의 체계가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창안하거나 유지하는 체계로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다(Scott, 1989). 특정 역사적 시점의 젠더 불평등은 그 시대의 생산양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오래된’ 가부장적 질서의 시대적 변용이다. 현 한국사회의 젠더 규범은 오랜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한국적 자본주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 2010, 71쪽 참고). <미생>을 국면전환

의 시기에 현실이해를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할 때 한국 사회의 젠더 규범에는 분명 균열이 보인다.

<미생>이 한국사회에서 젠더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의미라면 고정된 젠더 규범의 무용성과 실현 불가능한 것을 들춘 것 정도이다. 비록 관객이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행간 속에 감춰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신자유주의 노동환경에 젠더를 재소환하는 방식일지라도...

젠더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국면의 작동방식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다만 인종과 계급, 젠더 등의 여러 범주가 다양한 역사적 국면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연동되고 있는 만큼,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언제나 젠더가 우선 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국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에서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경제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까지 침투해 삶의 균열과 지향을 흔들고 있고 무한경쟁과 성과주의를 앞세워 '피로사회'로 내몰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균열을 내고자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놀랍게도 여성성도 아니고 남성성도 아닌 양성성 모두를 용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생>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오과장'을 통해 이상적인 조직의 리더를 보여줌으로써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공사이분법의 성별분리체계는 더 이상 돌봄 모성과 여성의 노동이 공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환(2013). 웹툰 [미생] 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 <안과 밖> 35호, 201-229.

김정화(2008).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성-조앤 스콧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제34집, 1-35.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39-82.

----- (2004)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제4권 제1호, 55-100.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권 4호, 153-187.

원숙연(2004). 여성주의적 조직연구: 지향과 쟁점.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87-304.

조 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
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69-95.

Scott, Joan(1999). Some More Reflection on Gender and Politic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Y: Columbia University 배은경(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
찰 <여성과 사회> 13호, 210-249.

----- (198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디어오늘 (2014. 12. 25). 장그래 농락하는 조중동의 뽀뽀한 거짓말.

여성신문 (2014. 11. 13). 여성 직장인에 위로를 건넨 드라마 '미생'

연합뉴스 (2014. 12. 24). 청년유니온 "'장그래법'은 희망고문 연장하는 법"

오마이뉴스 (2014. 12. 19). '미생'이 잃어버린 여자들, 안영이와 선차장

한겨레신문 (2014. 12. 22). '미생'의 인기 비결,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